

망덕포구·매화마을...광양여행 메타버스로 먼저 떠나요

가상여행 플랫폼 '전남관광 메타버스-광양랜드' 이달부터 운영 자전거 타고 매실 줍기 체험도...17일까지 가입 인증 경품 행사

광양시가 망덕포구와 배알도, 광양매화마을 등을 가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광양랜드'를 선보인다. 광양시는 이달 1일부터 디지털 대전환 시대 새로운 여행 경향을 반영한 '전남관광 메타버스-광양랜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광양랜드는 메타버스 플랫폼 '디토랜드'(ditoland.com)에서 광양을 여행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상의 공간이다. 광양시 등 전남 10개 시·군이 1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위탁을 맡겨 메타버스를 구축했다. 이 3차원 가상공간에서는 사용자가 시공간의 제약 없이 가상으로 여행하고 다양한 전남 관광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광양시는 망덕포구와 배알도, 광양매화마을 등을 가상 여행지로 선보이고 있다.

이곳에서는 섬진강 끝마을 '아트 자전거'를 타면서 광양 곳곳을 누빌 수 있다. 또 전어잡기를 하고, 매화마을 주민을 만나 매실을 주우며 '체험 도감'을 받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실제로 광양 진월면 섬진강 끝마을은 방문객들에게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디토랜드에 가입한 뒤 '전남관광메타버스'를 검색 접속하면 광양랜드를 만날 수 있다. 광양시는 더 많은 이가 가상 공간에서 광양 여행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가입 경품 행사를 오는 17일까지 진행한다. 광양랜드 접속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음식 배달 이용권 2만원권을 준다. 전남관광메타버스 첫 화면 상단에서 '지도', '랜드포탈 1'을 차례로 클릭한 후 이동 포털에서 '광양'을 선택하면 '광양랜드'가 펼쳐진다.



광양 명소를 여행할 수 있는 '전남관광 메타버스' 화면. 망덕포구(왼쪽)와 매화마을.



광양랜드에서 자신의 별명이 보이도록 화면을 갈무리한 뒤 등록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문화관광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메타버스 플랫폼 디토랜드에 구축된 전남관광 메타버스에서는 광양과 여수, 순천, 진도 등 10개 지역을 만날 수 있다. 여수 엑스포(EXPO) 해양공원, 오동도 유람선

타기, 여수 밤바다 관람, 빅오쇼 슈팅 게임, 플라잉 보드 경주 등을 즐길 수 있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서 스카이큐브 체험, 뱀배 체험, 순천만 보물찾기, OX 문제 풀이도 할 수 있다. 진도 이충무공 승전공원과 진도타워에서는 해상 케이블카 탑승 체험, 거북선 체험, 울돌목 노 젓기 게임, 물길 찾기 게임 등 총 12종의 지역 기반 체험이 있다.

정규영 광양시 관광과장은 "전남관광 메타버스-광양랜드 가입 이벤트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반영해 관광객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광양 관광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광양여행에 앞서 메타버스-광양랜드를 통해 가상으로 광양을 먼저 둘러보거나 광양여행 후 메타버스로 가상여행을 떠난다면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보성군 붓재 생태체험전시관 '그린다향 카페 비움' 재개장

운영 중단 4년만에 재단장

4년간 공백기를 가졌던 보성 복합 문화공간 '붓재'의 보성생태체험전시관이 '그린다향 카페 비움'으로 새롭게 개장한다. 보성군은 11일부터 '붓재' 3층 공간을 그린다향 카페 비움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성생태체험전시관이었던 이 공간은 코로나 19 사태와 전시관 운영 지원 종료로 인해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운영이 중단됐다. 보성군은 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공간을 새롭게 단장했다. 이곳은 '숲'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휴식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총 41석이 비치된다. 보성의 생태를 옮긴 '씨앗존' '새싹존' '물존' '산존' '차(茶)길존' 등으로 구성됐다. 카페 비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한편 보성읍과 화천면을 가로지르는 고갯마루에 있는 '붓재'는 연면적 4만9430㎡ 3개 층으로 마련됐다. 1층에는 보성역사문화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2



보성군이 11일부터 복합 문화공간 '붓재' 3층에 '그린다향 카페 비움'을 운영한다. 붓재 건물 전경.

층에는 카페 '그린다향' (오전 10시~오후 8시)과 특산물 판매장 '그린마켓'이 들어섰다. 보성군 관계자는 "붓재 3층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지역민과 외부인이 자주 찾는 보성군의 새로운 명소 역할을 할 것"이라며 "꾸준한 정비와 투자를 통해 붓재를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

여수시 영화 '노랑' 시민 초청 시사회

17일, 감독·배우들 무대인사도

여수시가 돌산읍 진모지구 등에서 촬영한 영화 '노랑 : 죽음의 바다' (사진) 시민 초청 시사회를 오는 17일 연다. '이순신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인 '노랑 : 죽음의 바다'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돌산읍 진모지구 촬영장과 남면 등지에서 찍었다. 이 작품은 노랑에서 벌어진 조선과 왜군의 최후 결전을 그렸다. 여수시는 시민 200여 명을 초청해 시사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회는 메가박스 웅천점에서 오는 17일 오전 11시 15분, 오후 1시 40분 총 2회에 걸쳐 마련된다. 영화를 연출한 김한민 감독과 주연 배우들도 참석해 무대 인사를 한다. 시사회에 응모하려면 12일까지 전남영상위원회 인스타그램 계정을 구독하고 영화 예고편을 시청한 뒤 기대의 말을 댓글로 남기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영화 개봉으로 전라좌수영의 본영이자 이순신 장군의 얼이 살아 숨 쉬는 여수의 이미지가 한 층 더 부각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사회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전남영상위원회 주관하는 '좋은 영화보기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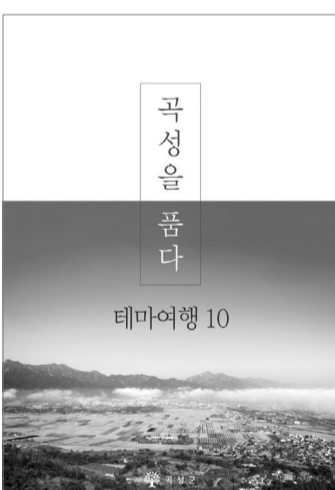
순천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4000명 모집

순천시가 오는 20일까지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어르신을 모집한다. 저소득·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총 4000명을 모집하며, 6개 수행기관이 참여한다. 순천시 거주자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참여 형태 4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익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사회 서비스형은 65세 이상,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60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되면 공익형 참여자는 11

개월간 활동해 월 29만원을,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는 10개월간 활동해 월 76만원을 받는다. 시장형 및 취업알선형은 근로계약서에 따라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순천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순천YWCA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어르신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사회 참여 기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을 품다-테마여행10' 안내서 발간

10개 주제 나눠 문화·역사·인물·관광명소 소개



정자와 사당'을, 8번째 여행은 '힐링이 함께하는 길'을 각각 소개한다. 9번째는 '맛에 흠뻑', 곡성 5마리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는 음식들을, 마지막 여행은 '농촌의 정이 흐르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소개해 곡성의 다채로운 매력을 전한다. 이상철 곡성군수는 "이 책자를 통해 관광객들이 곡성의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으로 느끼길 바란다"며 "곡성의 숨겨진 매력을 발견하고 싶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곡성=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10개의 주제에 따라 곡성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안내한 책자 '곡성을 품다-테마여행10' (사진)이 발간됐다. 이 책은 곡성 지역의 살아있는 문화와 역사, 인물, 관광명소 등을 10개의 주제로 나눠 이야기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곡성 출신 언론인과 시인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각 장소의 이야기를 맛깔스럽고 감성적인 문체로 풀어냈다. 단순히 관광명소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장소가 가진 느낌과 사색을 전달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첫 번째 여행에서는 '곡성의 역사와 삶이 흐르는 섬진강과 대항강'을 따라가는 여행지가 소개됐다. 전북 순창에서 곡성으로 처음 흘러드는 길목인 합강에서부터 제월섬-청계동계곡-침실습지-섬진강 출렁다리-압록을 거쳐 구례로 흘러가

는 섬진강의 여정이 멋진 풍광과 함께 그려진다. 또 곡성의 새로운 차 산책길로 주목받고 있는 석곡-죽곡-압록 구간의 대항강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두 번째 여행은 '곡성 관광의 새로운 동력, 기차마을과 동화마을'을 통해 두 곳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세 번째 여행은 '사색이 함께하는 곡성의 명찰'로 도립사, 태안사 등 지역의 유명 사찰을 소개한다. 네 번째 여행은 '곡성의 정기를 만나는 명산 순례'로 동악산, 봉두산 등 곡성의 아름다운 산을 안내한다. 다섯 번째 여행은 '곡성 문화의 현주소, 문화관·미술관'으로 조대일시문학기념관과 아산조방원미술관을 소개한다. 여섯 번째에서는 '생태의 보고, 침실습지·반구정습지'를, 7번째는 '정신문화의 산실, 곡성의

광양시 2~3학년 고교생 500명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

내년부터...20일까지 신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이사장 정인화 광양시장)가 내년부터 주요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지역 고교생들에게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수강권 지원 대상은 내년 기준 광양에 사는 지역 고등학교 2~3학년생이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오는 20일까지 500명의 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교육급여) 신청자라면 모두 수강권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선발 우선순위는 다문화·다자녀·한부모 가정, 성적 우수자 등 순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장학사업으로 추진된다. 백운장학회는 2억5500만원의 예산을 들어 수강권을 지원한다. 저소득층(교육급여)은 수강권 전액, 일반 학생은 20% 자부담을 제외한 수강권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백운장학회는 이달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인터넷 강의업체와 단체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내년 1월부터 동시에 수능 전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종합 수강권을 신청한 학생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정인화 백운장학회 이사장은 "이번 장학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학생이 평등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매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여건 개선으로 교육하기 좋은 교육 명품도시로 더욱더 도약하길 기대한다." 한편 백운장학회는 앞서 3차 이사회 회의를 통해 503명, 8개교 6억5000만원의 백운장학생 선발을 확정하고, 올해 총 1315명에 8억57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구례군(군수 김순호·앞줄 가운데)이 '2024년 모범음식점' 30곳을 지정하고 영업주들과 간담회를 연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모범음식점 6곳 신규 지정

구례군은 2024년도 모범음식점 6곳을 신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례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신규 지정 6곳을 포함한 모범음식점 30곳에 지정증을 나누주고 간담회를 열었다. 모범음식점은 신청 업소 가운데 현장조사 결과 위생 수준과 서비스가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좋은 식단을 실천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모범음식점 지정 제도를 운

용하고 있다. 구례군은 모범음식점 영업주, 사단법인 한국의식업중앙회 전라남도지회 구례군지부(지부장 한형석)와 구례지역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구례를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운동 실천도 결의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